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 9:1-8)

기독교에는 진리의 교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들도 고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 1.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본문에는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분명 그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 2.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동산에서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먼저인 것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 3. 믿음을 통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죄 사함 이후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치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신경들이 돌아오고 근육이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육신이 치유되는 은혜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과 육신을 치유 받으며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By Seeing a Friend's Faith

(Matt.9:1-8)

Not only the moral of truth but also the work of healing and recovery of power happens in the Christian. The power of Jesus on the cross heals our heart's wounds, and bodily diseases. Such a power of the cross comes into us through the medium of faith.

#### 1. Jesus always examines our faith

In the text, a paralytic lying on a mat appeared. Jesus looked into the faith of his friends who brought him and gave him grace. Those who have a sincere faith exert a faithful influence on people around them. The Apostle Paul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you and your household."

The fact that Jesus looked into the paralytic's friends means that his friends moved the paralytic person heart and made him believe in Jesus. Without our faith, we are never able to please God.

#### 2. We first of all receive grace and forgiveness when we confess our sins

The primary grace we receive by believing in Jesus is on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ll of the troubles we meet by living our lives are because of our sins. Before Adam committed sins, there weren't any suffering and sadness in the Garden of Eden. Therefore, what is the most urgent problem is our sins.

"He said to a paralytic,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v.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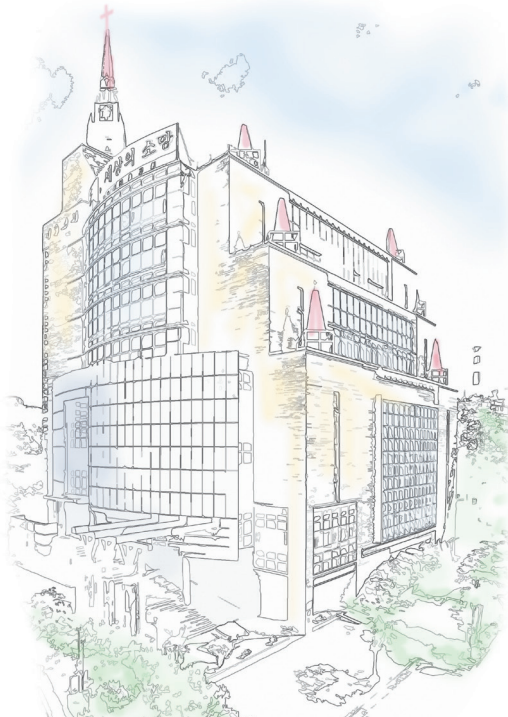
Jesus who was incarnated in human body came to the world with the power of forgiving sins of human beings. In other words, Jesus testifies that he himself is God. Before he solves the problem of the body and the world, Jesus says that the problem of sins must be, first of all, solved.

#### 3. The bodily diseases are healed by faith

After the forgiveness of sins, Jesus gives us permission to heal our body. The nerves of the man who was completely paralyzed returned and his muscles got energy by the power of Jesus words. That is why he was able to take his mat and go out with it. Therefore, we are able to gain the grace of our bodily healing with forgiveness of our sins.

My beloved Christians,

By receiving the healing of your mind and body, and fully having the victory,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faithful Christians.



# 오늘은 맥추감사절

## 오늘 I · II · III부 예배-성찬식 /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를 준비하여 드린다.

# 2013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 -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

2013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수련회는 7월 12일(금)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는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유아부	7.26(금)~28(주일)	서울교회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GO! GO!(마25:40, 레19:18)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유년부			Jesus Festival
초등부	7.22(월)~23(화)	아가페타운	예수님이 먼저 보여 주셨어요
중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고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만남
사랑부	7.13(토)~14(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구원으로 가는 횡령캠프
청년1부	7.17(수)~20(토)	아가페타운	THE ONE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5(목)~16(금)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디아스포라부	7.27(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에베다부	7.29(월)~31(수)	아가페타운	작은 자들의 친구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영어예배부	7.12(금)~13(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 2013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 신청마감: 7월 17일(수) / 수여식: 8월 2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 17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5 회 장로교의 날

## -2013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한국장로교회- 7월10일(수) 오후7시 / 잠실 올림픽 홀(올림픽공원 내)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 및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장로교 성도들이 모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회로 모이고 있는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올해도 계속된다.

이번 제5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수) 오후7시 잠실 올림픽홀(올림픽공원 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과 연합정신의 구

현, 나눔과 섬김 실천을 이변 행사의 방침으로 세웠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서울교회는 찬양대 100명을 지원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4)

### (문 93)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칠 때 하닷 에셀의 마병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답) 삼하8:4에 의하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투에서 마병 천 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18:4에 의하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두 기사가 같은 사건에 대한 보고임에는 의심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은 자의 수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 역대기 중 어느 하나가 필사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의 삼하 8:4은 대상18:4과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읽고 있는 삼하 8:4은 필사자의 과오로 보입니다.

Keil and Delitzsch(사무엘서, p.360)에 의하면 마병(rekeb)이라는 단어가 삼하8:4에서 서기관부의 주의로 생략되고 천을 가르키는 숫자가 백을 가르키는 숫자와 혼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리아의 평원에서 이만의 보병에는 기병은 천칠백보다 칠천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병(rekeb)의 생략은 초기 서기관에 의해 생긴 오류였다면 칠천 명을 천칠백 명으로 그 숫자가 감소된 것은 후기 서기관에 의해 잘못된 사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생긴 또 하나의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비평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과 같은 산악지대에서 마병이나 기병은 동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기록에도 병거와 기병과 보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려움이 없을뿐 아니라 마병이나 그 수의 문제에도 성경학자들에 의해 바로 잡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장년부 개강

## 7월14일(주) 1부예배후, 본당 (2층)

장년부가 다시 개강한다. 7월14일(주) 주일1부예배후 본당 2층에서 모이며 김철홍 목사의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

# 여전도회 연합회 특강

##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오는 10일(수) 오후 1시 101호에서 우리교회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총신대 이갑숙 교수이며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여전도회원들은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에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

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김다니엘 목사 인터뷰

영어와  
말씀의  
바다로  
오세요



영어예배부는 교회학교중 가장 먼저 7월 12일부터 1박2일간 "community in communion(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을 주제로 경기도 청평 소재 아가페타운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영어예배부는 올해 초 부담한 김 다니엘 목사의 지도 아래 지난 상반기동안 성경 공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수련회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의 세계에 빠져들기 위해 준비중이다.



영어예배부 지도 김다니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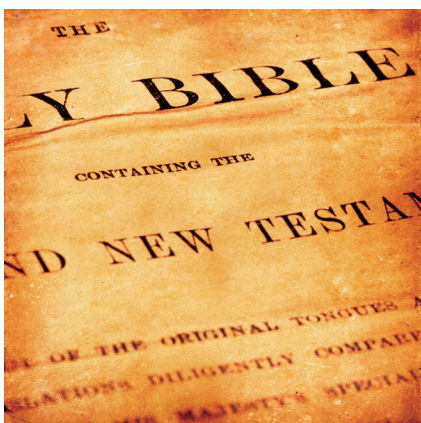
"처음 서울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저는 훌륭한 신앙적 전통이 바탕에 깔려 있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데 열정적인 성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영어학과장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 다니엘 목사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목회를 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전통을 토대로 김 목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평신도 리더양성'을 위해 지난 6개월동안 주일 설교와 리더 훈련, 성경 공부 등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에 충성"하도록 체질 개선중이라 한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거창한 것보다 작은 일에서 충성되게 섬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친교를 통해 이뤄지는 공동체'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목사는 청년시절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한편 발레에 심취해 2년간 뉴욕에서 발레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목회사역에도 조직적 면과 창의적 면이 융합되어 녹아들도록 노력한다고 말한다. "대개 다른 교회는 젊은사람들이 영어 잘하는게 일반적이는데, 서울교회는, 40~60대 분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게 큰 특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예배부는 국제학교 학생들과 교포, 외국인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중이라 한다.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을 이루는데 영어예배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온 교회에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정리 : 김민철 집사(편집부)

영어예배부 여름 수련회 초대의 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COMMUNITY IN COMMUNION



임홍수 집사 (영어예배부 부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어 예배부 2013 년도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 COMMUNITY IN COMMUNION 이며 부제는 " THE DYNAMIC BODY OF CHRIST -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 " 으로 강사는 김 다니엘목사님입니다. 영어예배부는 오는 7 월 12 일 (금)~13일(토) 이틀간 아가페타운에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습니다. 예배소서 4 장과 고린도전서 12 장 - 14 장의 말씀을 주제 성경으로 비록 1 박 2 일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모두는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의 향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 월부터 저희 영어 예배부의 교육담당으로 사역중이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세계적인 기타연주가 GAY 형제의 찬양 인도와 CING 자매의 말씀 인도도 무척 기대됩니다. 물론 재미있는 게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희와 함께 뜻 깊은 한 여름 밤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영혼을 치유하는 힐링캠프로...

## 윤지현 성도(사랑부 교사)

사랑부 학생들은 몸이 불편하고 말과 행동은 어눌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사랑부입니다.

어느새 7월,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사랑부는 오는 7월 13일 아가페타운에서, 14일은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사랑부 선생



님들의 기도와 준비 속에서 이번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구원으로 가는 힐링캠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율동, 여러 가지 만들기과 게임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부 지체들과 부모님 모두모두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힐링캠프'로 초대합니다.

즐거움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힐링' 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2013년도 제 13기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이 일반팀 6명, 의료팀 10명, 청년팀 9명, 총 25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카자흐스탄 비전트립은 오는 8월 2일부터 9일까지로 출발일이 불과 1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는 비전트립을 위한 별도의 바자를 하지 않으므로 성도님들의 물품 협조가 부득이 하게 되었다.

현지에서는 노트북, 카세트 플레이어, 중고 핸드폰, 소형 전자드럼, 여름티셔츠, 겨울티셔츠, 겨울점퍼, 모자, 가방, 운동기구(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탁구용품 등), 문구류(색연필, 크레파스, 볼펜, 노트 등), 약세사리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품 접수는 104호에서 상시로 한다.

- 지도:서명철 목사 / 단장:이준호 집사
- 부단장:정철웅 집사 / 총무:신두호 집사
- 부총무:이성화 / 회계:이인영 / 서기:박선영
- 의료팀:김봉배 집사, 정현구 집사, 이승현 집사, 박하나, 진민선, 김예나, 김혜미, 오동윤, 이다솜
- 장년 및 청년팀:곽태수 집사, 김희영 집사, 박수진, 임이랑, 김준석, 한현지, 이근원, 정예훈, 이희준,



### ■ 절전의 생활화 ■

우리나라 원전가동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올 여름은 특별히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 ### ■ 동 정 ■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일(월) 고 김상철기념사업회 공동회장단 모임에 참가한다. 10일(수) 제5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한다. 12일(금)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제1회 조찬기도회 설교를 한다.
  - 연주회 : 14교구 박수강 집사 7월11일 목요일 7시30분 강남구민회관 청소년음악회 서울필로첼버오케스트라
  - 사진전 : 3교구 홍일성 집사 7/2-8 예술의 전당 Gallery 7
  - 1교구 은기장 집사 개포1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총회 준비사무소 개소
  - 독녀 : 3교구 이원우 성도 차영림 성도
  - 주간식당봉사 : 루디아전도회(7.7) 뱀비 전도회(7.14)
  - 금주의 식사 : 임선철 집사 이영주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오정수 장로)는 지난 3일(수)-5일(금) 3일간 경주에서 제39회 전국 장로수련회를 가졌다. 첫째 날 주제 강의 강사로 이종운 원로목사가, 둘째 날 4,500여 명 장로들의 부흥회를 박노철 담임목사가 인도했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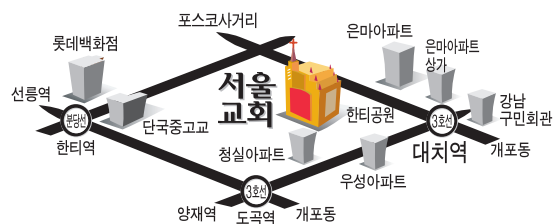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더 깊은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 영어예배부 수련회를 필두로 시작되는 각 부서별 여름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3. 7월 10일 오후 7시에 잠실 올림픽 홀에서 있는 제5회 장로교회의 날 행사를 통해 연합과 일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 당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 I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